



김수찬

신종길

김선빈

12타수 6안타(0.500) 7타점 4득점 5도루, 출루율 0.625

29타수 15안타(0.517) 11타점 7득점 5도루, 출루율 0.559

50타수 19안타(0.380) 5타점 12득점 8도루, 출루율 0.458

KIA 공격의 핵 2번 타자의 힘



'강한 2번'이 KIA의 신바람 행진을 이끈다. KIA 타이거즈는 13승5패1무(승률 0.722)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최고의 4월을 보냈다. 투·타의 핵 윤석민과 김주찬이 빠진 상황에서도 7할의 승률을 장식하면서 해태시절부터 이어온 '4월 징크스'를 깰 것이다. 아직까지 연패도 없다.

5월 첫 경기에서도 '난적' 두산에 상대로 14개의 안타를 몰아치며 8-1의 낙승을 거두는 등 KIA의 불이 눈부시다. KIA의 신바람 행진에는 강한 2번 타자가 있다. '강한 2번'은 KIA 선동열 감독이 부임 첫 해인 지난해부터 강조했던 타선의 필승 전략이다. 그 중심에는 캠프에서 선동열 감독의 눈길을 사로잡은 신종길이 있었다. 그러나 이용규와 신종길로 막강 테이블 세터진을 구성, 초반 싸움의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산은 개막 한 달도 안돼 실패로 끝났다. 헛도는 신종길의 방망이에 김선빈과 안치

홍이 2번에 투입됐지만 결과는 신통치 못했다. 올 시즌은 다르다. FA 대어 김주찬이 '강한 2번'의 전형을 보여주며 KIA 타선을 흔들었다. 손목 골절로 4경기 만에 타선에서 이탈했지만 '주찬 효과'는 막강했다. 김주찬은 부상 전까지 12타수 6안타(0.500) 7타점 4득점 5도루, 출루율 0.625의 기록을 남겼다. 치열해진 그라운드 경쟁 속에 신종길도

지만 올 시즌에는 15타점을 만들었다. 도루로 7개를 기록했다. 2번 자리에서의 신종길은 더욱 위력적이다. 2번 타자로 나선 7경기에서의 타율은 0.517(29타수 15안타)까지 뛰어오른다. 11타점 7득점 5도루, 출루율 0.559에 이른다. 2번 김선빈도 뜨겁다. 5월 첫날 경기는 김선빈이 주인공이었다. 완봉수비로 두산은

KIA 2번타자 얼마나 잘하나

- ▲2번 타자 기록=91타수 40안타(0.439) 23타점 23득점 18도루, 출루율 0.514
- ▲KIA 팀기록=775타수224안타(0.289) 129타점 141득점 38도루, 출루율 0.392

지킨 2번의 타율은 0.439, 세 명의 2번 타자는 0.514의 출루율과 함께 23타점 23득점 18도루를 만들었다. KIA의 팀 타율(0.289)과 출루율(0.392) 등을 감안하면 무서운 2번 타자다. 톱타자 이용규가 4월 0.247의 타율로 주춤했지만 '강한 2번'이 공격의 물꼬를 트면서 KIA의 막강 타선이 가동 될 수 있었다. 선 감독이 꿈꾸던 '강한 2번'이 완성되면서 화끈한 타이거즈 야구에도 불이 붙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주찬·신종길·김선빈 2번만 치면 '활화산'

KIA 초반 1위 질주... 신바람 야구 이끌어

깨어났다. 김주찬이 부상으로 빠졌던 지난 4월3일, 2번 자리에 들어선 신종길이 4개의 안타로 6타점을 만드는 놀라운 활약을 선보였다. '깜짝 활약'에 그치지 않았다. 1일 현재 신종길의 타율은 0.382, 지난해 2타점에 그쳤

뒀을 김선빈은 타석에서는 2번 타자로 나와 4개의 안타로 몰아치며 두산 마운드를 두들겼다. 김선빈이 2번 자리에 나와 만든 성적은 50타수 19안타(0.380)·출루율 0.458) 5타점 12득점 8도루로 뛰어나다. 김주찬과 함께 신종길·김선빈이 자리를

류현진 강력한 신인왕 후보

3승... 에이스 커쇼와 동급

원손 투수 류현진이 다저스의 역대 '괴물 신인'가 어깨를 견줄 수 있을까? LA 다저스의 류현진은 지난 1일 최강 타선으로 꼽히는 플로리다 로키스를 제물로 시즌 3승째를 수확하며 내셔널리그 신인왕 다운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경기 최다 탈삼진(12개) 신기록을 세우고 방어율은 3.41에서 3.35로 낮췄다.



180개를 잡았다. 발렌수엘라가 그해 달성한 8차례 완봉은 다저스 구단 역대 신인 투수 최다 횟수로 남아 있다.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3승 2패·방어율 1.73)와 더불어 팀 내 다승 공동 1위를 달린 류현진은 메이저리그에 첫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다저스의 핵심 선발로 자리매김했다. 나란히 6경기에 등판한 커쇼와 비교하면 류현진이 올린 성적의 가치를 한눈에 알 수 있다.

41.2이닝을 던진 커쇼보다 4이닝이 적은 37.2이닝 동안 마운드를 지킨 류현진은 탈삼진 46개를 낚아 47개를 잡은 커쇼와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역대 다저스 투수 중 폴타임으로 데뷔하던 해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이는 멕시코 출신 페르난도 발렌수엘라(53)와 일본인 노모 히데오(45)가 꼽힌다.

1980년 다저스 볼펜 투수로 10경기에 등판해 2승을 거둔 발렌수엘라는 이듬해 선발 로테이션에 진입해 13승 7패, 방어율 2.48을 올리고 리그 사이영상과 신인상을 석권했다.

당시 25경기에 등판한 그는 리그 투수 중 가장 많은 192.1이닝을 던져 최다인 삼진

역동적인 투구 폼과 폭포수 포크볼을 장착하고 일본에서 넘어온 노모도 1995년 28경기에 등판해 191.1이닝을 던지고 13승 6패, 방어율 2.54를 기록했다. 특히 다저스 신인 최다인 한 시즌 탈삼진 236개를 기록하고 당당히 신인상을 거머쥐었다.

류현진이 선발 로테이션을 지켜 시즌 끝까지 현재 탈삼진 페이스를 이어간다면 250개 이상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투구 이닝도 200이닝을 초과할 전망이다. 이또한 페르난데스와 노모의 기록을 넘을 수 있다.

다만 완투형 투수로 각광받은 두 '전설'과 대등한 반열에 올라서려면 현재 평균 6.1이닝 풀인 투구 이닝을 7이닝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류현진은 이날까지 6차례 등판에서 초반인 3회 이전 세 차례나 실점해 긴 이닝을 던지는 데 지장을 받았다.

1회부터 전력투구로 실점 가능성을 줄인다면 방어율도 낮아져 2점대에 진입할 것으로 점쳐진다. /연합뉴스

동성중 광주시협회장기 중학야구 우승

결승서 무등중 5-2 꺾어

동성중이 광주시야구협회장기 중학교 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동성중은 2일 KIA 합평 구장에서 열린 2013년도 광주시 야구협회장기 중학교 야구대회에서 무등중을 5-2로 꺾고 3전 전승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동성고는 우승의 영예와 함께 오는 7월에 열리는 제43회 대통령기 전국 중학 야구대회 광주대표 출전권을 획득했다.

동성중 박진수가 최우수선수에 선정됐고,

동성중 송진우는 우수투수상을 받았다. 7타수 4안타(0.571)의 이주형(동성중)이 타격상, 김석환(동성중)이 최다타점상(5타점), 정윤환(충장중)은 최다도루상(4개)의 주인공이 됐다. 동성중 이재홍에게는 미기상이 돌아갔다.

동성중의 우승을 이끈 강태성 감독이 감독상, 이운택 야구부장은 지도상을 받았다.

한편 광주시야구협회는 이번 야구대회 참가팀에게 (무등중·충장중·동성중·진흥중) 각각 200만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지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장성 출신 최종삼씨 태릉선수촌장 됐다

현역시절 유도 간판선수

장성 출신 최종삼 전 용인대 교수(사진·65)가 대한체육회 태릉선수촌장으로 선임됐다.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는 지난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최 전 교수를 태릉선수촌장으로 선임했다.

최 신임 선수촌장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선수촌을 만들겠다"며 "국가대표 선수들도 국민의 염원에 힘입어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선수촌장은 현역시절인 1971년 세계선수권대회 63kg급에서 동메달을 따내는 등



한국 유도의 간판선수로 활약했으며, 대한유도회 부회장과 동아시아 유도연맹 회장, 국가대표 감독 등을 역임했다.

은퇴 이후 단국대에서 석사, 명지대에서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으며, 1981년 용인대 교수로 부임해 지난해 대학원장을 끝으로 정년퇴직했다. 전남도체육회 이사인 최종문 전남테니스협회 고문(70)과 '형제 유도인'으로도 유명하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